

<p>지원동기: 기술을 하나로 엮는 개발</p>
<p>웹 서비스 개발의 기획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을 통하여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고자 신시아에 지원합니다.</p> <p>리크루트, 다이이치 생명 등 다양한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부터 대규모 시스템 운용까지 폭넓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신시아에서, 설계부터 구현까지의 경험을 살려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p> <p>IoT 기반 스마트 축사 웹/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설계, MariaDB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Spring Boot를 활용한 백엔드 개발, React와 React Native를 이용한 웹/앱 프론트엔드 개발까지 한 프로젝트의 전체 사이클을 직접 구현하며 웹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시스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p> <p>React 기반 경험을 활용해 Nextjs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Ruby를 학습하여 백엔드까지 확장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업을 만들어 간다"는 철학을 실현하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었습니다.</p>
<p>프로젝트 경험: 편리를 향한 설계의 시작</p>
<p>축사 관리 시스템의 개체 관리 페이지를 구현하며 "관리자의 수동 작업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매일 반복되는 데이터 관리 작업들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리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입력 작업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가 가능한 세 가지 기능을 추려냈습니다.</p> <p>1. 나이 및 성장 단계 자동 업데이트</p> <p>Spring의 Scheduler를 활용해 매일 자정에 나이가 자동 증가하며, 나이에 따라 성장 단계가 자동 지정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초기에는 MariaDB의 Event Scheduler 사용을 고려했으나, 오류 처리와 확장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Spring에서 구현했습니다.</p> <p>2. 그룹 등록 시 개체 자동 생성</p> <p>그룹 등록 시 반복문을 활용해 입력한 마릿수만큼 개체가 자동 생성되도록 구현해, 관리자가 개체를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p> <p>3. 연도별 그룹 번호 자동 생성</p> <p>시스템의 장기적 사용성을 고려해 'YYYY-NNN' 형식(예: 2025-001)의 그룹 번호가 자동 생성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매년 001번부터 새로 시작되는 구조로 설계해 연도별 데이터 관리가 편리하고, 몇 년이 지나도 번호 체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자동화로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제거해 관리 효율을 높였으며,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개발자의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p>
<p>나의 강점: 도전을 실현으로 만드는 힘</p>
<p>저의 강점은 새로운 일에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입니다.</p> <p>베이커리 근무 당시, 성형 작업만 담당하던 중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기자, 모든 공정을 배워 사이클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르는 공정은 기록하며 배웠고, 기록한 내용은 일하는 중에도, 퇴근 후에도 지니고 다니며 공부한 결과 3주 만에 전 과정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질문하며 학습했고, 결과적으로 신입 직원에게 각 공정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p> <p>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라즈베리파이를 처음 접했을 때, 하드웨어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기 담당을 맡았습니다. 회로 연결부터 기기 제어 코드 작성까지 책과 동영상, 공식 GitHub, 커뮤니티 등 여러 매체를 참고하여 파이썬 코드를 통해 기기 제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Flask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으로 라즈베리파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p> <p>'필요한 기술 정보를 스스로 찾아 학습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개발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의 필수 역량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강점을 지속적으로 살려 신시아의 'Be Hungry' 가치관을 바탕으로 언제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p>
<p>입사 후 포부: 구현을 넘어, 방향을 제시하는 개발자</p>
<p>단순한 기능 구현에 그치지 않고, 기획·설계·운영까지의 흐름을 이해하며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p> <p>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설계가 미흡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마주했습니다.</p> <p>1. 기능 구현 중 데이터베이스 컬럼 정보가 수시로 추가·수정되어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p> <p>2. AI의 도움으로 부분적인 기능 구현은 가능했으나, 전체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결국 코드 수정이 필요함.</p> <p>이러한 문제를 통해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역할을 넘어,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한 설계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p> <p>아직 개발 경험이 많지 않기에, 당장 프로젝트 설계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지금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능력부터 키우겠습니다. 현재 SQLD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설계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론 학습과 실무 적용을 병행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p>

